

개학과 여교수의 ‘마이너 필링스’

이 글을 쓰고 있는 2022년 8월 말 현재, 코비드 19는 종식되지 않았다. 조만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낙관의 말이 떠돌기도 했지만, 감염자 수는 획기적으로 줄지 않았다. 그러나 더 이상 코비드 19는 모골이 송연해지는 ‘역병’이 아니다. 여전히 안전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우리는 대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캠퍼스 생활 없이 꾸역꾸역 온라인 강의만 들어온 코비드 19 학번들은 비로소 빼앗긴 봄을 되찾게 되었다. 그러므로, 어렵게 각자의 방에서 나오게 된 젊은이를 환대해야 할 임무가 교수인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으로의 복귀는 가슴 떨리는 설렘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가벼운 감기나 우울 같기도 한 정동의 정체는 무엇일까? 줌으로 만나기 때문에 후줄근한 하의를 입어도 되는 편리한 생활과 작별하고, 마스크를 쓴 채 발음이 뭉개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일이 끔찍해서만은 아니다. 매 학기 똑같은 되풀이임에도 불구하고 늘 시작을 어려워하는, 늙지 않은 감수성 탓도 아니다.

대면을 하지 않는 사이에 타인과 함께 하는 능력과 소통 기술은 더욱 떨어졌을 것이다. 거짓 없는 영혼의 눈으로 보자면 과거는 결코 낙원이 아니었다. 모든 게 코비드 19 탓만은 아니어서 갈등이나 뼈격뎀은 언제나 감지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학에서 페미니즘 문학이나 문화를 가르치는 ‘여’교수들이라면, 분명히 지금 개강은 조금 더 두렵게 실감될 것이다. 코로나로 황망하기만 한 중에도 대선을 치르며 ‘이대남’의 존재를 실감했고, 지금 우리는 여성부 폐지가 공약으로 내걸리고 장애인 교통권 시위가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비판되는 도착적 세계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만난 강의실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대화회적 원칙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무엇보다 과연 페미니스트 교수는 강의실에서 말할 수 있을까? 자신의 말을 검열하느라고 분주하고 그런 자신에 대한 혐오에 빠지며 간혹 편집증적 망상에 시달리지 않으리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캐시 박 홍이 『마이너 필링스』(2021)에서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사로잡는 인종화된 감정으로 소개했던 짜증, 울화, 무력한 분

노 같은 ‘소수적 감정(minor feelings)’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2015년을 전후로 페미니즘이 ‘리부트’되었지만 대학에서 페미니즘 교육이 과연 가능한지는 미지수다. 페미니스트 교수는 “꼴페미”로 ‘사이버 불링’의 대상이 되고, 강의 평가로 ‘응징’ 당해 심하면 강단에서 추방당할 수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소문이다. 그래서 대학에서 신분이 낮은지 담이 약하든지 간에 ‘취약한’ 사람들은 교수라는 언뜻 보기에 휘황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강의실에서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쉽다. 학교 본부는 대학에서 페미니즘 교육의 불가능성이라는 문제에 굉장히 무심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현실에서 자유로운 발언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지만 페미니즘 문학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말의 자유가 불가능한 현실이 연구의 동력이 되는 상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지금 여기서 논의할 여력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력감과 마음의 염증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때로 환멸은 글을 쓰게 만드는 동력이라는 것이다. 기후 위기를 실감할 만큼 지구는 녹아내릴 듯이 뜨겁고 자주 환멸과 냉소의 감정이 차올랐지만 13편의 학술논문과 각 1편의 석사논문, 서평, 번역논문을 담아 『여성문학연구』 56호는 꽤 풍성하게 꾸러졌다. 여성문학연구의 지평이 넓어져 다양화되고 있음을 증명하듯이 페미니스트 연구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지역, 장르, 시기에 관한 논문들이 담겼다.

특집은 지난봄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의 일부를 모아 꾸렸다. 봄 학술대회 주제는 애초 ‘아시안 페미니즘, 혐오의 정치와 증거주의를 넘어’로, 아시아에서 페미니즘 문학과 운동이 놓인 역사적, 정치적 상황을 다루기 위해 기획되었다. ‘중군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아시아 여성이 인종 범죄의 새로운 대상으로 떠오른 현실에 착목한 시의적절하고도 진취적인 기획이었다고 자평한다. 각각 국적이 다른 여러 지역의 연구자들이 모여 상황리에 국제적인 학술대회를 꾸렸지만, 여러 제약상 학술대회와 달리 ‘재일조선인 여성’, ‘미국 내 아시아 여성’의 존재와 목소리에 관한 논문만이 실리게 되었다. 번역논문으로 소개하는 왕쉐전의 「‘위안부’, 그리고 중국 항전문학」을 특집과 함께 묶어 읽는다면 아쉬움을 다소는 달랠 수 있을 것이다. 일국적 단위를 넘어서, ‘아시아’라는 지역적 맥락, 유교 가부장제라고 불리는 문화적 배경, 식민 체험의 역사적 특수성 그리고 인종으로서의 ‘아시안’ 여성 문제에 좀 더 종합적으

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신지영의 「재일조선여성의 ‘마이너 필링스’와 대명사화된 ‘어머니’: 재일 조선여성 1세들의 문해교육과 글쓰기」는 재일조선인 여성 1세들이 쓴 ‘생애사적 글쓰기’를 ‘자기서사 공통장 텍스트’라고 개념화하고, 이 글쓰기를 통해 여성들이 ‘마이너 필링스(자기비하, 자기혐오, 수치심, 수동성)’에서 벗어나 욕망하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음을 살펴보고 있다. 캐시 박 흥은 ‘마이너 필링스’를 소수자들이 극복해야 할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아시아인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모범적 소수자라는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로 주목했지만, 신지영은 이와 다소 다른 맥락에서 재일조선인 여성의 소수적 감정 쓰기가 당사자들이 놓인 인종적, 성적 복합차별을 벗어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음을 매우 충실하게 규명하고 있다.

오사카 공립대학의 교수인 송혜원의 「‘재일조선인여성’을 읽다: 재일조선인 1세 여성들을 가시화하기 위한 한 가지 시도」를 신지영의 글과 묶어 읽기를 권한다. 두 논문 모두 재일조선인 여성들의 수기, 일기, 에세이 등을 연구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에서 여성 당사자들의 자기 서사가 창작되고 있어 시의성 높은 연구라고 판단된다. 수기, 일기, 에세이 등은 그간 잡문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 ‘잡문’들은 사실상 지식을 얻거나 문학 권력을 갖기도 어려운 주변부 여성들의 장르로, 그 중요성이 높지만 여성 연구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못했다. 송혜원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듯이 재일조선인 1세 여성들이 일본어와 조선어의 두 언어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 채 일본어 문헌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모두 냉전적 사고에 갇혀 총련 영향하에 쓰여진 사람들의 작문을 외면하고, 공문서를 상위에 두고 개인의 글쓰기를 하위에 두는 것과 같은 사료의 서열화에 사로잡히고, 권위를 인정받은 작품만을 비평 대상으로 삼는 문학 연구의 편협함 등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외에도 시카고 대학에서 한국문학을 연구하는 김소혜의 「안과 밖의 마이너 필링스: 한국계 미국인 서사의 유통과 소수적 감성의 재배치」는 시의성 높은 당대적인 연구로, 한국계 미국인의 ‘소수적 감정’ 서사가 국가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유통되면서 서로 다른 맥락에서 재배치되는지를 검토하고, ‘소수적 감정’을 생산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리 아이삭 정의

〈미나리〉가 개봉되고 출연 배우인 윤여정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자 제국에 대한 깊은 열등감의 표현인 양 한국인들은 민족적, 인종적 나르시시즘에도 취되기도 했다. 이 글은 이러한 한국인의 ‘국뽕’적 감상 방식을 비판하면서 최근 증가하는 미국계 아시아 여성들의 글쓰기를 한국인들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날카롭게 짚어주고 있다. “한국 사회 내의 한국인들도 한국 사회의 인종적 위계에서 누리는 특권과 수치심에 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고, “한국 사회에서 사소한 것으로 여겨진 수많은 감정과 존재들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 고민하라는 조언은 디아스포라 문학(문화) 연구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에 대한 제시라고 할 수 있다.

일반 논문으로 4편의 고전문학 관련 연구가 실렸다. 『여성문학연구』는 제호에 한국이 붙어 있지 않은 데서도 짐작 가능하듯이 다양한 지역 연구를 포괄하기도 하지만 국문학을 고전과 현대로 배타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학회지임을 보여준다. 연구의 시기는 달라도 연구의 관심사는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유정일의 「동해안 〈광인곡〉에서 돌봄과 치유」를 비롯해 김준희의 「성(性) 소화(笑話)에 나타난 ‘옛보기’와 ‘옛듣기’-『어면순(禦眠楯)』을 중심으로」, 서경희의 「남편을 위한 한글 제문의 서술 전략과 의미-‘독처의 제문’을 중심으로」, 염원희의 「노상추일기를 통해 본 조선후기 산후병의 현실과 질병 인식」은 최근 들어 인간을 주체라기보다 ‘취약성’을 본질적 조건으로 하는 존재로 보는 시각이 새롭게 생겨나고, 코비드 19로 재택근무와 재택교육이 늘어나 ‘돌봄’이 새로운 여성 문제로 주목되면서 고전문학에서도 현대문학과 마찬가지로 질병, 돌봄, 죽음과 애도 등이 새로운 연구 키워드가 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일반 논문으로 6편의 현대문학 관련 연구도 실렸다. 특정한 시기에 치우치지 않고 식민지기부터 전후 한국 근대화기, 그리고 민주화와 그 이후의 시기에 대한 연구가 모두 담겼다. 우연이라기보다는 소수에 머물던 여성문학 연구자층이 두터워지면서 연구가 다각화되고 있는 증거일 것이다. 남은혜의 「소설로 쓴 ‘노라이즘’-나혜석 「경희」, 「현숙」, 「어머니의 딸」을 중심으로」는 김명순과 더불어 한국여성문학의 기원이 되는 작가이지만 간통 스캔들의 주인공으로만 그저 소비되어 온 나혜석의 소설가로서의 면모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이다. 박윤아의 「장덕조 소설에 나타난 ‘문학소녀’와 ‘여류’-「해바라기」(1937)와 「여류 예술가」(1940)

를 중심으로», 강지윤의 「성장 혹은 유예-1960년대 여성 성장서사 다시 읽기」는 각각 그간 규수 작가, 여류 작가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린 작가 장덕조와, 4·19 혁명의 열기 속에서 문학의 쇠신이 이루어지지만 “여류”라는 프리미엄에 안주하고 말았다고 비판받았던 1960년대 여성문학에 관한 적극적인 읽기를 시도한 사례로써 주목을 끈다. 정영진의 「5.18과 모성-5.18 소설의 모성 재현을 중심으로», 최가은의 「90년대 여성문학의 곤란한 ‘대중성’-공지영 담론을 중심으로», 김예니의 「1990년대 여성작가의 섹슈얼리티 재현방식 연구-은희경과 전경린의 초기소설을 중심으로」 모두 1990년대 여성문학에 대한 연구로 그간 한국문학사가 여성 작가의 약진으로 특징지어지는 1990년대 문학을 상업성의 징후나 인터넷 문학으로 폄하해 왔던 것을 참고해 보면 더욱 흥미롭게 읽힐 것이다.

『여성문학연구』는 추천 석사 논문을 소개함으로써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독자들과 공유하고, 서평을 통해 인문사회과학계의 최근 이슈들을 연구자들과 공유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번 호에는 추천 석사 논문으로 강은교의 「페미니스트 세계만들기(worlding)로서 듀나의 SF에 대한 연구」를 수록한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한국문학 장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페미니즘 SF이다. 만약 우리가 한국여성문학사에서 페미니즘 SF의 계보를 찾는다면 1990년대 탈로맨스와 섹슈얼리티의 서사가 압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장르를 여성 중심으로 탐색했던 듀나를 꼽지 않을 수 없다. 문학성이 뛰어나지만 작품의 수가 상당하고 작품이 난해해 듀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강은교의 논문은 듀나에 관한 많은 후속 연구를 촉발하는 이정표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장은애의 「치유-폭력을 횡단하는 여성주의 장애학 문화비평」은 “근현대 한국에서 장애·젠더·성의 재화와 정치”라는 부제가 붙은 페미니즘 장애학 도서인 김은정의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에 관한 서평이다. 그간 근대문학이 남성/중산층/이성애자/정상인의 욕망과 시야에 간혀 있었다는 점에서 김은정의 문제의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서평은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이 대안 혹은 대항적 문학을 구상하는 데 있어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장단에서의 마이너 필링스는 아마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대학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현실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 각자는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은 중요

한 문제다. 피해의식은 우리에게서 창조성을 앗아가고 길을 잃게 만들고 말 것이 라는 버지니아 울프의 말을 염두에 두고 박해 망상과 분노에 영혼이 갇아먹히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때로 심각한 갈등과 논쟁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슬쩍 피해가는 것은 결코 비겁하다고 몰아세울 수 없는 지혜일 것이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언어 사전에 상투어만 남겨두는 삶은, 몹시도 지겨워 우리의 정신이 먼저 권태에 질식할 것이다.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이너 필링스를 동력으로 삼아서 주류 사회가 외면한 마이너한 주제들에 천착하고 우리의 언어를 베틀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한 땀 한 땀 논문이 완성된다면 『여성문학연구』에 투고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대접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김은하(회장, 편집위원)